



「ねとわーく通信」 第1号

- 柏市国際交流協会 在住外国人ネットワーク委員会
〒277-0852 柏市旭町 1-4-18 後藤ビルⅢ
(TEL)04-7144-1300 (FAX)04-7144-3020
(URL) <http://www.kira-kira.jp>
- 柏市国際交流室
(TEL)04-7167-0941
(URL)<http://www.city.kashiwa.chiba.jp/>

◆ 재주외국인 네트워크를 만듭시다! ! -----

카시와시국제교류협회(KIRA)는, 카시와시와협력하여, 재주외국인네트워크만들기활동을하고있습니다. 목적은, 대지진등의 재해에대비한 지식이나 생활에필요한 정보를 여러분에게 보다빨리전하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외국인의 방재의식을조사하는 앙케이트와 방재전을 실시했습니다. 또, 외국어 방재핸드북과 표시판만들기 이외에, 교류회를 3 회실시하여 여러분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2년째의 올해는, 네트워크활동의 내용을전달하는 정보지의 발행, 지역의 방재훈련참가와 6 회의 교류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교류회... 제 1 회—7/8(토)、제 2 회—9/23(토)、제 3 회—10/9(월) -----

1 KIRA 사무실에서 제 1 회를실시하여, 8 개국 31 명의 외국인이참가했습니다. 작년에는 KIRA 재주외국인네트워크 위원회가 작성한「생활정보에 필요한 셋트」의 설명을 했습니다. 이 셋트의 내용물은, 방재 핸드북·카시와시 방재 지도·생활 편리장·쓰레기 버리는 법등, 참가자와 스태프가 활발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외국인중의 수명은 교류회의 계획을 세우는 첫 단계 때부터 함께 참가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카시와 재주외국인 여러분의 의견을 참고로, 재주외국인 네트워크가 여러분의 도움이 될 수있도록, 더욱더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 제 1 회교류회
정보 셋트 배분.

2 마쓰도 시에 있는 지바켄서부 방재센터를 방문해서, 제 2 회 교류회를 실시했습니다. 참가한 20 명의 외국인과 스태프 8 명은 2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연기속을 통과하여 피난하기, 진도 7 의지진과 풍속 30 미터의 폭풍체험, 소화기 사용법과 인공 호흡,심장 맞사지법 등을 배우고 재해 발생시의 행동요령 등의 귀중한 체험을 했습니다. 참가한 사람들은 방재센터 안내인의 설명을 통역을 통해 듣는 등, 열심히 여러가지 체험을했습니다. 돌아오는버스안에서, 방재센터에서 받은 비상용 비스켓의 시식을 했습니다.

3 제 3 회 교류회를 카시와시 공민관에서 실시했습니다. 「이문화 마찰을 이겨내고」를 테마로 토미나가 신타로씨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토미나가 신타로씨는 많은회사에서 이문화 커뮤니케이션교사로활약하고계십니다. 8 개국 16 명을 포함한 외국인과 일본인 34 명이 참가했습니다. 「외국인의 일본생활 주의점」, 「일본인의확실치않은 대화법」등, 일본문화와 외국문화의 차이점에관해, 2 시간에걸쳐 흥미깊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가자중에는일본어가불가능한사람도있어, 토미나가씨는 일본어와 영어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 제 2 회 교류회
진도 7 을 체험!

제 3 회 교류회
공연중의 토미나가씨 ▶



◆ 교류회 앙케이트... 교류회에 참가한 외국인에게 들은 질문과 대답

1 회 교류회의 내용에 관한 요망은, 예의와 일본문화가 가장 많았고, 다음이 생활상의 문제와 방재, 그 이외에는 요리와 학교에 관한 상담, 일본어회화, 견학, 스포츠등이 있었습니다. 또, 친구에게 다음 교류회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겠다고 사람, 계획당초부터 참가하겠다고 대답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2 회 방재센터의 감상은, 전원이「도움이 됐다·즐겁게 견학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또, 카시와 시와 재주외국인 네트워크 위원회에 대한 요망으로는, 방재훈련 체험이 가장 많았고, 네트워크 만들기 등도 있었습니다. 카시와시의 홈 페이지와 「생활정보 필요셋트」에 관해서는 많은사람이 이미 알고 있었고, 내용도 좋다는 대답이었습니다. 이러한 견학을 보다 많은사람에게 경험시켜주기를 바란다는 의견과 카시와시는 외국사람에게 편리하고 살기 좋은 시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3 회 공연회의 감상은,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일본과 다른나라문화의 차이점을 잘 알게되었다, 가장 알고 싶었던 정보였다는 등의 감상이 많았습니다. 단, 영어, 중국어 이외의 언어를 사용하는 참가자중에는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듯 했습니다. 또, 많은 참가자가, 친구에게 교류회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겠다고 대답했습니다.

◆ 카시와시민의 학습회 협력요청

KIRA는, 카시와시의 「국제이해 강좌」라는 학습회에서, 외국에 관해서와 네트워크에 관해서라는 내용의 이야기를 통해, 외국인이 카시와시에서 안심하고 생활할수있도록, 시민에게 협력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다음의 3 회입니다. 11 월 8 일, 남부 근린센터에서, 스리랑카출신회원에 의한 「스리랑카의 시니어생활」。 2 월 1 일, 토요일키다이 근린센터에서, 3 개국의 회원에 의한 「모국의 역사와 문화」。 2 월 15 일, 아뮤제카시와에서, 네트워크위원 수명에 의한「Volunteer 활동에 관해서」.

◆ 제 5 회 교류회 정보

「일본생활에서 의문으로 생각한 것은 없으십니까? 함께 이야기를 나눕시다!」

일시: 2006 년 11 월 25 일(토) 13 시~15 시

장소: 카시와시 소비생활센터

내용: 일본에서 생활하면서, 습관이나 문화의 차이로 인해 생긴 오해등의 여러가지 문제들중, 「인사」 「언어 사용법」 「습관·행동」에 관한 촌극(연극)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눕시다.

비용: 무료 (경식 있음)

신청: 11 월 20 일(월)까지 KIRA 사무실. ☎ 04-7144-1300 fax 04-7144-3020